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예수님의 작은 꽃 데레사 성녀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큰 태풍이 없어 다행이라 생각 했는데 간간히 우박이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를 본 농민들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다시 힘을 내시길 기도합니다. 원래 10월 첫째 주일을 군인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올해는 셋째 주일로 옮겨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을 늦게 발견한 바람에 할 수 없이 ‘공소사목’ 지 책임자인 제가 갑작스럽게 강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좋아하던 성녀의 축일 강론이라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10월 15일이 축일인 스페인 아빌라의 성녀인 ‘대 데레사’ 혹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10월 1일이 축일인 프랑스 리지외의 성녀 ‘소화 데레사’, 혹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한 데레사 성녀는 예수의 작은 꽃, 혹은 단순히 작은 꽃(소화, 小花)이라고도 불리는 성녀입니다.

솔직히 소화 데레사 성녀를 바라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쇄생활을 하는 가르멜 수녀원에 사셨던 분이 어떻게 ‘선교의 수호자’

로 선포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평소 데레사 성녀의 마음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남길 정도로 선교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였지만 데레사 성녀는 수녀원 안에서 선교사들과 서신으로 교류하며 선교사들을 위한 지향으로 열심히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데레사 성녀를 1927년 12월 14일 선교사들의 주보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레사 성녀를 바라보면서 선교의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직접 선교지에 가서 행동으로 하는 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선교 지역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과 기도로 하는 선교입니다.

어느 본당 신부님께서 예비신자 모집을 앞두고 본당 수녀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녀님, 저는 예비신자 모집을 위해 본당에서 간절히 기도 할겁니다. 그러니 수녀님께서도 신자들과 함께 가서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본당 신부님께서도 밤낮으로 성당에 앉아 열심히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수녀님께서도 긴가민가했는데 예비신자 환영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수녀님께서도 신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본당 신부님께서 하신 기도 역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그런 모습으로 선교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24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였으며 깨끗하고 위대한 영혼을 지녔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1897년 9월 30일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소명, 마침내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제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의 품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한 송이 작은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데레사 성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주님의 아름다운 한 송이 사랑의 꽃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풍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는 곧바로 이웃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10월 전교의 달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목국장 김정현 마태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대축일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 충실하였던 성녀 소화 데레사는 자신을 낮추고 기도와 희생을 바쳐 선교의 수호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가장 약하고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소화 데레사를 본받아 우리 모두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292번 ‘성녀 소화 데레사’

본기도

† 하느님, 비천한 이들과 어린아이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저희가 복된 데레사의 길을 충실히 따라, 그의 전구로 하느님의 영원한 영광을 뵈옵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66장 10절-14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묵 상 :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가장 낮고 겸손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작고 여린 아기의 평화로움을 겸손하게 청해 봅니다.

화 답 송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제2독서 : 코린토 1서 7장 25절-35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으니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묵 상 :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좀 더 단순해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일은 무엇인지, 지금 나는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8장 1절-5절

강 론 : ‘예수님의 작은 꽃 데레사 성녀’(1-2쪽)

예물준비성가 : 332번 ‘봉헌’

영성체성가 : 179번 ‘주의 사랑 전하리’

영성체 후 묵상

“저를 하늘까지 올려줄 승강기는

오! 예수님, 당신의 팔입니다.

당신 팔을 타고 올라가려면

저는 커질 필요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작은 채로 있어야 하고,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의 기도 중에서)

<침묵>

소화 데레사 성녀는

작은 마음 안에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침묵>

우리도 점점 더 작아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단순함과 가벼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435번 ‘어린이처럼’

※ 공소사목 성금

박기섭님

10,000원

이성우님

2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54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9월 30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월) 09:00
- 장소 : 안동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구장

■ 여성연합회 피정

- 일시 : 10월 10일(화) ~ 11일(수)
- 장소 : 강원도 인제 다물 피정의 집,
인제 자작나무 숲
- 대상 : 본당 여성단체 간부
- 참가비 : 45,000원(1박 4식)
- 준비물 : 미사준비, 성서, 묵주, 세면도구,
잠바(저녁 추위), 편안한 신발,
모자, 필기도구

■ 못자리 신앙잔치

- 일시 : 10월 14일(토) 10:00 - 17:00
- 장소 : 안동 KBS 공개홀, 운동장
- 대상 :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운동복, 운동화,
개인식수, 명찰(공문 참조)
- 참가비 : 1인 5,000원(유치부 포함)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6

- 일시 : 10월 16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교구 말씀축제

- 일시 : 10월 22일(주일) 09: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내용 : 성경 암송대회, 성경 장기자랑 및 기타 작품 전시
- 참가비 : 1인 12,000원(도시락, 생수 제공 및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제4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11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8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마감 : 10월 30일(월)까지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1차 모집 :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5장
사랑의 결실

확대 가정의 삶

넓은 마음

196. 부부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소가족 형태 이외에도, 대가족 형태가 있으며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 파생적이고 더 넓게는 같은 가정의 성원들 간의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가정의 친척과 성원들 간의- 사랑은 가정을 더욱더 깊고 강렬한 일치로 이끌어가는 끊임없는 내적 역동성에서 생명과 보조를 받습니다. 이 일치는 혼인과 가정 공동체의 기반이고 영혼입니다.” 여기에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가정들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나 사회적 책임과 신앙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가정 공동체들도 포함됩니다.

197. 이러한 확대된 가정은 많은 사랑으로 미혼모, 부모가 없는 아이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많은 애정과 친밀함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독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 미혼자들, 헤어졌거나 사별하여 홀로된 이들,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노약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심지어 삶의 패배를 경험한 이들”까지도 감싸 안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대된 가정은 부모의 취약함을 보완해 주고 자녀들이 폭력, 심지어 학대로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알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부모가 온전한 사랑과 안정된 가정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8.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확대된 가정에는 배우자의 부모와 모든 친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친지들을 경쟁자나 위협적 존재나 또는 불청객

으로 여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부부 결합은 부부의 타당한 자율성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부부 서로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비판을 삼가고, 서로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한 배우자에 대한 너그러운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제6장 사목적 전망

199.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나는 대화에서 새로운 사목적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공동체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모두 존중하는 보다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정 사목을 제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사목적 도전 과제들 가운데 몇 가지만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 관한 복음 선포

200. 시노드 교부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가정 사목의 으뜸 주체가 되어, 특히 “부부와 가정, 가정 교회의 기쁜 증언”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노드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에 관한 복음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주는’ 기쁨임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복음의 기쁨」, 1항) 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비추어 볼 때(마태 13.3 참조), 우리의 임무는 씨를 뿌리는 데에 협력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은 하느님의 업적입니다. 또한 가정에 대해 설교하는 교회가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혼인한 부부는 목자들이 그들에게 강하고 견고하며 오래 견디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랑을 용감하게 실천하라고 격려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교회는 겸손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에 다가가고자 하며 “가정이 나아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을 발견하도록 모든 가정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사목 계획에 가정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정 사목의 더욱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으려면 “가정 안에서 복음화와 교리 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소리 없는 아우성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주일 아침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친하게 지내는 후배의 부인이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평소 그들 부부가 사는 모습을 지켜봤던 나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착하기 그지없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싶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늘 일을 했다. 밝고 씩씩해서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바쁘게 사느라 지나간 줄 알았던 갱년기 우울증이 오십 중반에 찾아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 한지 불과 열흘만이었다니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일 것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찾아간 빈소에는 정적만 흘렀다. 후배는 정신이 반은 나간 것 같았다. 새벽녘에 겨우 잠든 모습을 보고 잠시 운동을 다녀온 사이 일어난 일이라니 얼마나 놀랐을까? 더구나 병원을 다녀왔지만 걱정이 되어 대학병원에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여서 아쉬움은 훨씬 컸을 것이다. 눈물을 꺾고 눌러 참으며 냉정을 찾으려는 후배를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 큰 딸이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의젓함이 대견하면서도 애잔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내의 건강을 챙겨주고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반대다.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을 걱정할 뿐 정작 위기에 처한 아내를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남편들은 바깥일로 바쁘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 해야 할 일도 가야할 곳도 많다. 일이 우선이다 보면 아내에게는 무관심해진다. 이때를 노려 공격하는 것이 갱년기 우울증이다.

갱년기 우울증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뚜렷한 전조증상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저 한차례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 당사자는 죽을 지경이라고 외치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주변에서 잇을 만하면 발생하는 흔한 병이지만 제대로 된 치료약도 없다. 더욱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평안하던 가정이 위험해진다.

그동안의 고생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부부끼리 오붓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싶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 반에 해당하는 50년조차 온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해진다.

그래도 예방책은 있다.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다. 함께하며 외롭고 공허해진 마음을 다독여 줘야한다. 귀를 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어야 한다. 같이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곧 환한 새벽이 온다.

남편의 기를 살리는 원동력은 아내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남편이다. 서로가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완전체가 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부부는 그래서 일심동체요, 2인 3각 경기의 주자다. 같이 발걸음을 맞추고 균형을 이뤄야 넘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같이 가야 할 이유다. 가정은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원천이다.

더 이상 우울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저녁에는 후배와 술이라도 한 잔해야겠다. 밤하늘에 새별 하나가 반짝일 것이다.